치주질환을 동반한 중장년 환자에서의 발치 교정치료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고재원*, 김동현, 정현철, 유지원, 이경민, 조진형, 오민희

서론

치과치료를 받는 환자 중 중장년층 및 고령 환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시기는 신체 노화의 결과로 치주질환 유병률이 급증하는 연령대이다. 치주질환자의 교정치료시엔 치주질환의 활동성 여부와 구강위생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치조골 소실로 인해 변화된 저항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비교적 약한 교정력을 적용해야한다. 본 증례는 국소 중증 치주질환이 있는 중장년 환자에서 발치를 동반한 포괄적 교정치료를 통해 치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미적인 안모와 향상된 교합을 달성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증례보고

57세 여자 환자가 “입술이 나왔고 아래 치아가 불규칙해요.”라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전반적으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치주염이 존재하였고, 하악 전치부와 상악 우측 구치부의 심한 골소실이 있었다. 순측경사된 상전치와 하악치열의 중증의 총생, 입술이 돌출된 양상을 보였다. 환자의 치주질환 상태의 안정화를 확인한 후, 상악 양측 소구치와 하악 우측 중절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계획하였다. 비교적 치아 이동이 많은 발치 치료 중 치주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증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환자 위생관리 교육을 시행하였고 약한 교정력을 유지하였다. 치료 후 정상 수직 및 수평피개와 가볍게 닫히는 입술과 함께 심미적인 측모를 달성하였다. 국소적 수직 골소실이 심했던 하악 전치부는 치아이동으로 인하여 수직 골소실이 일부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고찰

활동성 치주질환이 있는 치아에 교정력이 부여되면 치주질환이 급격히 악화된다. 치주질환자의 교정치료시엔 초진 시 치주질환의 심도를 판단하고 교정력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교정치료 중엔 철저한 구강위생관리와 변화된 저항 중심 위치를 고려한 적절한 교정력과 교정력 부여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치료된다면 소실된 치주 조직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고령의 나이와 불량한 치주 건강에도 불구하고 발치를 동반한 포괄적인 교정치료를 고려하여 향상된 심미적, 기능적 결과와 높은 환자만족도를 달성하였다.